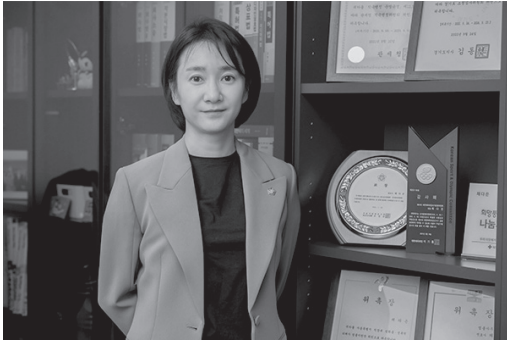


정직함과 당당함으로 자신의 세계를 경영하는 ‘법조 여전사’ 채다운 변호사



법조인의 힘



채다운 법무법인 한중 변호사는 울산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 컴퓨터학과, 한국외국어대학교 로스쿨을 졸업했다. 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고 개업하며 변호사로서 첫발을 내디뎠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위원, 국제통역번역협회 일본어전문번역사, 한국여성변호사회 이사,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중재 자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대한체육회장 선거운영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감사, 경기도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관세청 적극행정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 중이다.

채다운 변호사(41·변호사시험 제4회)는 마치 완충된 배터리를 장착한 채 무대에 오르는

아이돌처럼 씩씩해 보였다. 또랑또랑한 하이톤의 말투는 거침없었고, 거기에 담긴 내용은 자신의 삶을 통해 이미 충분히 숙성시킨, 설득력 있는 경험칙들이 대부분이었다. 나는 채 변호사의 캐릭터에 분명히 매력적인 요소가 있다는 걸 감지했는데, 차츰 인터뷰가 진행되면서 그것이 자신의 콤플렉스에 대한 정직한 수용과 그 대가로 얻은 귀한 자유와 당당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우선 울산이라는 그의 태생지와 늦둥이라는 배경이 내겐 범상찮게 다가왔다.

“외지인들이 많은 울산에서 나고 자랐어요. 친구들 중에도 사투리를 쓰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였고요. 제가 완전히 늦둥이이고 오빠와는 띠동갑이어서 뭐든 빨리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대학도 재수하고, 사법시험도 뜻대로 되지 않더라구요.(웃음) 선한 부모님이 특별히 물려주신 건 없지만, 사랑은 충분히 받고 자란 셈이에요. 대학에 가서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수업료를 해결하는 등 자립심도 강했어요. 사실 고등학교 때 신나게 놀았어요. 학구적이거나 모범생이 아니었죠. 야자 빼고 노래방도 가고 친구들과 정말 재미있게 놀았어요. 제가 여중 여고를 나왔는데,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학생이었다고 할까요. 그게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가능했던

건 제가 고등학교에 들어갈 때 울산시 전체에서 차석을 했기 때문이에요.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걱정을 안 하셨어요. 믿는 구석이 있어서 저렇게 놀겠지라고 생각하신 거죠. 그런데 결국은 대학은 재수를 하게 됐죠.”

인공적인 이미지가 승한 산업도시에서 늦둥이로 태어난 그에겐 세상이 일종의 미증유의 개척지처럼 다가온 게 아니었을까. 도전 정신과 모험을 자극하는 세계 말이다. 채 변호사는 대학에서는 의외로 컴퓨터를 전공했다고 한다. 자신은 뺏속까지 이과이고 0과 1로 만들어진 디지털 인간이었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정의라는 개념을 물으면 justice보다 definition이 먼저 생각났다고. 그랬던 그가 어떻게 지금 변호사라는 직업을 가지게 되었을까.

“제가 원래 사람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대학에서 컴퓨터 언어, 코딩을 배웠는데 논리, 로직은 이해되는데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법대 수업을 들었는데, 판례를 들으면서 흥미를 느낀 거예요. 3학년 올라갈 즈음인가 사시를 볼 생각을 하고 신림동에 들어가 공부를 시작했어요. 저는 전국적인 시험, 범위가 없는 시험은 잘 쳤거든요. 중간고사 같은 건 못 봤지만요(웃음). 집에서도 가타부타 말없이 제가 하고 싶은 걸 존중했구요. 시험공부에 필요한 비용도 다 제가 수학과외를 하면서 충당했어요. 다른 수험생들이 그룹스터디 같은 걸 하러 다닐 때 저는 과외하러 가면서 몰래 운 적도 있어요.”

생활과 시험을 온전히 혼자서 감내하는 동안의 하중이 못내 무거웠을까. 채 변호사는 사법시험에서 고배를 마신다. 그러는 와중에 로

스쿨 제도가 도입되고 그는 교수님과 상담 끝에 로스쿨에 들어가 다시 한번 법조인의 길을 모색하기로 한다. 이때를 회상하는데, 정직하고 쿨한 고백이 나왔다.

“사시 준비하다가 로스쿨에 들어가면 2군의 느낌, 어딘지 모르게 패잔병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로스쿨 교수님과 상담을 하면서 너는 법대에 학적이 없으니 로스쿨에 들어가 학위 과정을 밟으면서 공부를 해보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듣고 로스쿨에 들어갔죠. 사람들은 보통 로스쿨이 돈이 있는 집의 자제들이 유리하다고 하는데 제 입장에선 아르바이트 걱정 없이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던 유일한 시기가 바로 로스쿨이었어요. 장학금도 받을 수 있고 수업료도 대출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죠.”



변호사시험 제4회로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채 변호사는 취업이 안 돼 잠시 슬럼프를 겪었다고 했다. 30대 중반에 들어서는 여자변호사를 환영하는 로펌이 많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다가 선배 추천으로 모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가 9개월 정도 일을 하다가, 마음에 맞

는 동료들과 같이 나와서 개업을 했고, 이후에 혼자서 다시 독립을 해 일하다가 별산 체제로 올해 2월에 한중예 합류해 오늘에 이르렀다고 했다. 변호사 9년차, 채다운 변호사는 그 사이 형사전문으로 자신을 특화해 제법 실력을 인정받고 법조계 동료 선후배들에게서도 양질의 평판을 얻었다. 그는 변호사 3만 명 시대, 변호사의 위상이나 역할에 대해서도 과거와는 다른 생각을 해야 한다는 소신을 어떤 인터뷰에서 피력하기도 했다. 특히 피의자나 가해자를 대리하는 것도 변호사의 매우 중요한 역할임을 강조했다.

“분명히 죄가 되는 경우엔 그걸 받아들이게 하는 것도 변호사의 일이고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게 하는 것도 변호사의 일이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할 때 제지하는 것도 변호사가 해야 하는 일 중 하나예요. 변호사는 어느 쪽을 대리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양자 사이의 분쟁과 갈등을 조정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하는 존재예요. 상대를 적으로 보아선 안 되는 거죠. 사실 성폭력 가해자 중에는 자기 죄를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회가 요구하는 성인지감수성이 없어서 모르는 것일 수 있거든요. 그때는 그들에게 자신의 죄를 받아들이게 하는 게 중요해요. 합의금도 제시해 주고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재산이 전혀 없을 경우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어요. 피해자는 이런 상황을 이해 못하고 당연히 몇천만 원은 받을 수 있다고 막연히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변호사가 이거라도 받아야 한다고, 그게 이득이라고 현실을 직시할 수 있게 해줘야 해요.”

이럴 때는 ‘뺏속까지 이과’라는 채 변호사의 앞선 고백에 자연스레 고개가 끄덕여진다. 한 사람의 죄를 묻고 동시에 피해자를 위무하는 형사 사건에서 삼엄하게 지켜내야 할 균형을 잃어내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일까. 그런데 채 변호사는 그걸 특유의 침예한 이성과 분별력으로 소음 없이 해내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채 변호사는 어떤 이유로 개업 변호사, 형사전문 변호사의 길을 걷게 되었을까. 강단이 있어 보이는 말투와 호기심 가득한 눈빛을 보건대, 형사 사건들이 거느리고 있는 수많은 인간들의 화소(話素)에 끌렸던 건 아닐까. 사람에게 관심이 많다고 했으니, 내 추측이 전혀 근거가 없지는 않을 터인데,

“형사 사건이 재밌어요. 사업주 입장에서 테이블 회전이 일단 빠르고요. 형사는 빨리 끝나는데, 민사는 정말 길게 끌거든요(웃음). 형사 사건이 재밌는 이유는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이 동석할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인간의 허약한 내면이나 욕망, 위선 같은 원형적 모습들을 깊이 관찰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도 좋아요. 형사 사건은 인간에게 죄라는 굴레를 씌우냐 마느냐 하는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변호사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민사보다는 많다는 것도 형사 사건의 매력이에요. 저는 의뢰인의 사소한 스토리를 알아야 그를 위해 가장 섬세한 조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법원에서 피의자가 이미 저지른 죄와 앞으로 죄를 지을 가능성을 보고 판결을 하는데, 저도 그래서 피의자를 만나면 왜 그랬냐고 꼭 물어봐요. 제가 맡은 사건 중 병원에서 일하는 젊은 남자가 발가벗고 뛰어나

나는 소동을 벌이다가 기소된 일이 있었는데, 이야길 들어보니 3교대 계약직으로 뛰면서 노모 병원비도 대고 삶이 팍팍하더라구요. 정신 병동에서 난동을 부리는 환자들에게 맞은 적도 있대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쌓이다가 충동 때문에 그런 일을 벌였다는 거였죠. 기소됐을 때가 피고인이 해당 병원에서 정직원 된 지 석달 됐을 때였거든요. 제가 그래서 판결에 따라 회사에서 쫓릴 수 있으니 한 번만 선처해 달라고 판사님에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판사님이 검토해 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결국 그 사건은 선고 유예가 나왔어요. 기대 이상의 결과였죠. 결국 판결의 결과인 처벌의 수위가 한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 할 수 있다는 걸 피력했기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채 변호사는 세 권의 책을 펴낸 작가이기도 하다. 특히 성폭력 사건을 경험하면서 정립된 자신의 입장과 소신을 정리한 책 <당신 탓이 아니다>에는 무고죄에 대한 그의 각별한 관심이 드러나 있다. 우리 사회엔 무고죄를 양성간 이슈와 연결시켜 다소 관대하게 보는 경향이 있고, 무고죄 처벌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경우 여성주의자들이 반발을 하는 경우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성적 평등의 문제와 맞물려 무고죄의 진실을 정확하게 직시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 채 변호사는 분명한 어조로 무고죄를 남자와 여자라는 프레임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무고는 허위의 사실로 타인을 신고한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의도적인 거짓말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것인데, 여기에 왜 여성 남성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무고죄는 모든 형

사 사건에 적용되지만,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 허위의 사실을 가리는 건 매우 중요해요. 객관적인 증거가 없이 피해자의 진술로만 인정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어떤 중년의 여자가 택시를 탔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기사와 언쟁이 생긴 거예요. 그 여성이 경찰서로 달려가 운전 기사가 자신을 강제 추행했다고 허위 신고를 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 사건에서는 택시 차량의 실내 블랙박스 영상을 다 살펴보고 나서야 여자가 의도적인 거짓말로 택시 기사를 무고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만약 무고라는 게 안 밝혀졌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택시기사는 직장을 잃게 될 뻔한 거예요. 성범죄자 취업제한 규정에 따르면 성범죄자는 택시 기사를 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소를 당한 쪽의 위험만큼 무고를 하는 사람도 강하게 처벌해야 하는 게 대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형사 사건의 피의자가 된다는 건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형사 고소를 당해서 입건되면 혐의없음이 나와도 수사 대상이 되었다는 입건 기록은 그대로 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고는 남의 인생에 돌이킬 수 없는 사회적 타격을 주는 거예요. 성범죄 사건을 맡다 보면 무고로 보이는 사건도 적지 않고 애매한 사건도 많아요. 성범죄 사건을 안 해본 분들이 무고죄에 대해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 성범죄 사건을 쉬쉬하던 것도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었지만, 굳이 사람 간에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사소한 스킨십까지 일이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하기 시작하면 그것 역시 올바르지 않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마치 소신이라는 것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라는 걸 알려주기라도 하는 것처럼 그 어떤

눈치도 보지 않는 거침없고 솔직한 발언이다. 채 변호사의 말은, 내면에서의 독한 회의와 슬한 경험칙을 거쳐서 만들어진 소신은 이렇게 당당하고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 또한 보여준다. 이런 소신은 2, 30대 젊은 친구들에 대한 선배로서의 조언 몇 마디를 부탁했을 때도 이어졌는데, 내용이 이렇다.

“젊은 친구들에게 제가 꼰대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요. 지금은 사실 자신이 의지만 있으면 예전보다 무언가를 습득한다거나 공부하는 것이 훨씬 쉬워졌어요. 인터넷에 들어가면 무한의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전에는 돈있는 친구들이 과외를 받으면서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정보를 습득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저는 원래 노력 안 하는 친구들이 투덜대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해요. 열심히 하면 기회가 얼마든지 있어요. 저성장시대의 박탈감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또 예전에는 없던 기회도 생겼거든요. 아이디어와 에너지만 있으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유튜브 과고들어서 성공하는 젊은 친구들도 있잖아요.”

이쯤되니 내 눈에 채 변호사가 그냥 에너지 충만한 겁 없는 아이들이 아니라, 거침없는 세계관을 피력하는 힙합 전사처럼 보인다. 법조인의 여전사. 아직 미혼이라는 채 변호사는 대학 때부터 독학으로 시작한 일본어가 원어민 수준이고 번역사 자격증도 가지고 있단다. 도장깨기식으로 EBS 일본어회화를 통으로 외워 버렸다고. 그리고 여가시간은 온전히 자신을 위해 쓴다고 한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시간을

쪼개고 쪼개서 정말 미친 듯이 논다는 것. 스킨스쿠버도 하고, 승마도 하고, 최근엔 와인 공부도 하느라 프랑스 와이너리에도 다녀왔단다. 물경 1년에 자동차 운행 거리가 4만킬로미터에 달한다고.

그녀에게 마지막으로 10년 후에는 무엇을 하고 있을 것 같느냐는 질문을 던졌다.

“언젠가 친구들이 저한테 ‘다른 사람은 몇 년 후에 무슨 일을 하고 있을지 예측이 되는데, 너는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미리미리 뭘 계획하고 살기보다는 어떤 일에 흥미가 생기고 재미가 있을 것 같으면 뛰어가서 일단 해보고, 이리 튀고 저리 튀고 그렇게 해왔거든요. 10년 후에도 저는 그게 뭐가 될지는 모르지만 제가 제일 하고 싶어하는 일을 즐겁게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 정해진 궤도를 천년 만년 도는 별이 아름다우면 얼마나 아름답겠는가. 그보다는 단 한 번 궤도를 이탈함으로써 선명하게 붉은 줄을 저 푸른 허공에 긋는 별똥별이 아름답지. 채 변호사는 그걸 나면서부터 아는 사람인 것 같다.

(저작권자/법률신문)